

---

第50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生活環境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

日時 1991年9月11日(水) 午前10時

場所 生活環境委員會

---

議事日程

1. 現況報告(産業經濟局)

---

審査된案件

1. 現況報告(産業經濟局) ... 1面

---

(10時 08分 開議)

○委員會 白昌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生活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1. 現況報告(産業經濟局)

○委員長 白昌鉉; 議事日程 第1項 産業經濟局 所管 業務現況報告를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어제 木洞 쓰레기 燒却場과 난지도 쓰레기장 현장시찰을 잘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委員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여러 委員님들과 執行部署 關係公務員이 함께 市政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意義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生活環境 분야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委員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될 質疑와 금일 産業經濟局 所管 執行府의 성실한 答辯을 통해서 보다 나은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委員會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委員會는 市民을 위하여 막중한 責務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서울 시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는 위원상 정립에 邁進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會議에 관해서 잠깐 議事進行을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李基烈 委員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李基烈 委員; 새로 오늘 關係官이 모두 참석하였기 때문에 저는 統合 民主黨 所屬 江南區 出身 李基烈입니다. 제가 아침에 위원장님에게 議事進行發言을 부탁했습니다. 어제 연결된 사항을 제가 집에 가서 몇 가지 생각한 점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끼리만 조용히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도 좋지만 분명히 밝힐 것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오니 委員 여러분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甲論乙駁 하면서 퇴장하는 委員이 있었고 또 어제 쓰레기장이니 열관리발전소니 모두 방문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저로서는 마음에 조금 꺼림칙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議案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너무 고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議會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듣기에 거북스럽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제 3時 20分경에 저희들이 그만 質疑 應答을 하고 방문을 합시다. 했는데 質疑 應答을 계속 하다 보니까 5時경이나 되어야 視察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燒却場에 가서 그냥 구경하고 해야 할 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비하는 상황을 못 보고 지금 왔습니다. 그쪽 關係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우리가 꼭 답사해야 할 부분을 답사를 안 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하지 않습니까?

3時 20分경에 會議를 우리가 중단하고 방문합시다. 했는데 그것도 계속하다 보니까 5時에 視察을 했는데 그 때 가서 구경할 것도 못 하고 왔고 난지도 쓰레기장에 가서도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똑똑히 봐야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또 다시 가봐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議案 가지고 너무 집착 하지 마시고 또 방문할 적에 우리가 방문답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李基烈 委員; 네, 어제 票決에 부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野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票決에 부치도록 하

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없는데 委員長님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票決에 안 부치고 議會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白昌鉉; 네, 감사합니다.

報告를 듣기 전에 委員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마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찬 보다 효율적인 會議를 운영하자는 데는 異意를 제기 할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제도 상당히 委員長이 질책을 받을 정도로 會議를 지연시켜 가면서 意見を 모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한 委員이 퇴장을 하는가 하면 지금 李基烈 委員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議事進行方法에 의해서 한방 먹이기 위해서 會議를 票決에 부친 것이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끝에 몇 가지 어제 우리가 처음 해보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委員님들한테 事前에 몇 가지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一問一答을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質問者가 열두 분이나 되는데 한 분이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끝내고 다른 분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셔야지 그냥 계속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議事日程 절차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事前 申請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발언을 하시는 그런 규율을 오늘부터는 지켜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分科도 어제 끝나고 난 다음에 分科委員長 모

임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보통 2時, 3時에 시작을 하는가 하면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거의 다 書面으로 答辯하는 그런 제도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일정을 짜는데도 오늘 내일 계속 10時부터 오후 5時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委員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그것도 모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일부 質疑를 하시고 答辯은 書面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會議 진행에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수 없이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崔浩 委員; 委員長님! 잠깐만요.

○委員長 白昌鉉; 네.

○崔浩 委員; 李基烈 委員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오늘 産業經濟局 所管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저께 스케줄상에 있어 가지고 3時에 가기로 했지만 어저께 쓰레기 埋立場 同意案이 서울시로부터 들어온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案件을 다루던 것을 우리가 매듭을 짓고, 설사 쓰레기장 소각장을 우리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매듭을 지었고 票決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어저께 林翼根 委員이 修正案을 내놓고 本人이 없었기 때문에 本人이 여기에서 철회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굳이 票決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會議 진행상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表決에 부쳤던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昌鉉; 네, 지나간 얘기는 서로 양해하고 이상으로 끝내시고 오늘 모두 다 바쁘신 시간에 모이셨고 또 關係 公

務員님들이 오셨으니까 質疑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會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勳 産業經濟局長 나오셔서 業務現況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실로 30餘年 만에 꽃피운 地方自治의 議政 壇上에서 市民生活와 가장 밀접한 事業經濟 分野의 市政을 報告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責任感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産業經濟局 전 직원들이 市民의 편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 해도 불편을 느끼는 市民이 없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정활동을 통한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忠告와 助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市民의 수요는 量的으로 증가하고 質的으로는 고급화되어 가고 또한 多樣化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의 流通産業은 政府의 通商政策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방되어 선진 외국의 대형 流通産業이 얼마나 들어오게 될지 예상조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기존의 재래시장은 물론 영세화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규모의 적정화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市民의 所得水準 향상은 청정원료와 신선한 農水畜産物의 수요급증으로 이어집니다. 현대화된 도시가스과 재래 연탄이 혼재한 서울의 연료 공급문제, 市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農水畜産物을 적정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가로 놓여 있더라도 모름지기 市民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議會가 따로 없고, 執行機關이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議會와 서울市는 대립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서 출발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보다 알차고 뜻 있는 地方自治의 꽃을 활짝 피우리라고 확신하며 委員님들의 충정 어린 高見과 助言, 指導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産業經濟局 및 산하 事業所 幹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商工課長 書記官 李重吉 課長입니다.

(李重吉 商工課長 人事)

다음은 燃料課長 書記官 金在宗 課長입니다.

(金在宗 燃料課長 人事)

다음은 가스課長 書記官 金致經 課長입니다.

(金致經 가스課長 人事)

다음은 農畜課長 書記官 崔熙周 課長입니다.

(崔熙周 農畜課長 人事)

다음은 糧政課長 書記官 李來昶 課長입니다.

(李來昶 糧政課長 人事)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관 鄭載赫 所長입니다.

(鄭載赫 農村指導所長 人事)

다음은 공업시험소장 지방기계기좌 李揆珍 所長입니다.

(李揆珍 工業試驗所長 人事)

이상 소개를 마치고 91년도 산업경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報告)

産業經濟局 現況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業務現況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장시간에 걸쳐 産業經濟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産業經濟局 幹部와 委員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가 市政 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는 質疑와 성의 있고 확실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담이 가시겠지만은 끝남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業務現況 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發言 申請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을 올립시다만 신청을 꼭 하시고 申請하신 분이 발언이 다 끝나고 났을 때에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申請을 받아 발언을 하시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우선 접수를 받습니다.

○申龍吉 委員; 委員長님 오후 몇 時까지 質疑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委員長 白昌鉉; 그럼 신청을 받은 委員님은 權赫柱 委員님, 李元局 委員님, 崔浩 委員님, 金成奐 委員님, 李基烈 委員님인데 접수된 순서대로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權赫柱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柱 委員; 江西 第6選舉區 權赫柱 委員입니다.

局長님께서 장시간 동안 業務報告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質疑할 내용은 서울 전지역이 3個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農水産物 都賣市場建設基本計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90年 2月 21日 農水産物 都賣市場 建設基本計劃이 세워져 가지고 3開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이미 동남권은 可樂洞 市場이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부권과 서남권이 아직 未開設地域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은 陽川, 江西, 九老, 永登浦, 西大門, 麻浦, 恩平, 龍山, 銅雀, 冠岳 해서 約 10個區 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서남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현재 農水産物 葉가 보급과 消費者 보호 측면에서 시급히 이 지역에 農水産物 유통센터가 들어 와야 되는데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94年 이후에나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本委員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시점으로 봐서 토지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현재 그 지역에는 住宅團地가 아직 형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農地를 현재 葉가로 매수 할 수 있고 또 현재 제 위치로 봐서는 서북권의 엄청난 농자원의 물량이 일부 그 쪽에서 소비될 수 있는 이런 특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쪽 住民들은 현재 可樂洞 市場으로 農水産物을 사러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 그 쪽 住民들이 그 지역에 감으로 인해서 많은 交通滯症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에 農水産物 유통센터가 시급히 조성이 되어 그 쪽 住民들이 싸고 葉가적인 農水産物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좀더 당겨서 추진할

수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규모 유통센터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로 江西나 陽川이나 九老일대에는 대규모 유통시설이 없습니다. 즉 百貨店 같은 시설인데요, 이것이 永登浦지역에는 대형 유통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3個 지역 서남권에는 현재 들어 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 왔으면 하는데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昌鉉; 權赫柱 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産業經濟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權赫柱 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農水産物 권역별 대형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남권은 지금 현재 94年 이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당초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남권 도매시장 건설 이후에 바로 第2의 도매시장건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동남권 도매시장인 可樂洞 都賣市場이 정착 단계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는데 約 3年 정도가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대규모 도매시장은 地方自治團體의 독자적인 투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비 70% 또 國費 30%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이 건설되도록 되어 있고 地方의 경우에는 地方비 50%와 國費 50%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권 도매시장의 건설이 지원이 되었고 또 투자되는 막대한 자금 때문에 政府쪽이나 자치단체쪽의 재정형편상이것이 하나 다 완성된 다음에 서부권 서남권 도매시장을 건설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쪽 지역 住民들이 農水畜産物을 싸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통 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直販場의 개념 즉, 都小賣業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中小規模의 農水畜産物 都小賣市場을 우리가 여기다 건설할 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江西區의 內鉢山洞에 적당한 후보자가 마련이 되어서 約 한 5千여 평 규모가 됩니다. 다마는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이것을 건설해서 운영할 그러한 유통 전문기관인 農協이던 畜協이나 水協이나 流通公社 등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부서남권 都賣市場의 건설은 94年 이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住民들이 이러한 直販市場의 개설로 인해서 農水畜産物의 구입에는 별로 지장이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유통센터 百貨店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백화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민간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기서 規制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심 지역 내의 교통 소통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량의 평가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것을 許可해 주고 있습니다. 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陽川, 九老, 江西 이렇게 변두리 지역의 대규모 유통센터 백화점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권장을 해서

이것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商工課長 李重吉; 商工課長 李重吉입니다.

陽川 木洞 신시가지의 유통 業務地域에 대규모 백화점 부지를 지금 5,000坪을 확보를 해 가지고 公賣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망자가 구입을 하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新宅地開發 地區로서 加陽地區에 住宅建設을 하면서 대규모 유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도 대규모 백화점을 유치하도록 저희들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權赫柱 委員;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실제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재래시장 보다는 그러한 큰 百貨店이나 유통 기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그 먼 곳의 중앙지대까지 차를 가지고 진입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더 한층 市場을 보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간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白昌鉉;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元局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局 委員; 局長님으로부터 報告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입니다만 서울시는 당초 4대권역 공영 도매시장 건립계획에서 3대 권역으로 수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農產物 直販場 건립 차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住民들의 便宜를 위해 각 區마다 한 곳씩 설립하려는 農產物 直販場의 건설이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차

질을 빚고 있고 그나마 부지를 확보한 區에서는 건립지역 住民들이 반대로 직판장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반대하는 住民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면 住居地域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農産物을 사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좋지마는 農産物 취급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쓰레기 운반차량의 소음과 市場 진입로의 교통 체증으로 住民生活에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業務報告時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住民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각 區의 農産物 直販場 건립 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한 報告가 있었습니다만 다만 住民들의 불만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을 하여 각 區마다 農産物 直販場이 건립될 수 農産物 直販場 건립 차질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좀 答辯을 해주십시오.

몇 가지 가능하면 간략하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매매 참가인 仲買人 昇格化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한 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農水産物都賣市場의 管理運營體系 및 去來制度를 農安法 體系上으로 보면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의 개설 주체는 서울시가 되어 있고 管理主體는 管理公社, 運營主體는 指定都賣人이고 募集 機能도 역시 指定都賣인, 分散機能은 중매인과 賣買 參加人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은 아시다시피 부지면적이 16萬 2,278坪인데 指定都賣人은 청과취급 지정도매인 농협을 포함해서 5個, 水協을 포함해서 水産 취급이 2個法人, 乾魚物 1個 그리고 畜協 1個를 포함해서 모두 9개법인이 실질적인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9個 法人에 소속된 仲買人數는 靑果가 908名으로 알고 있고 水産이 395名, 畜産이 41名, 總 1,344名이 있는데 이 중 靑果에서 과일과 채소의 仲買人數와 店鋪數를 분리하면 과일의 경우는 店鋪가 458個, 中매인수는 276名이고 채소 店鋪는 431個의 店鋪의 仲買人數는 632名으로 仲買人 1人 1店鋪 입주로 보더라도 과일은 182個 店鋪가 남고 채소는 210個의 店鋪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店鋪의 수급불평형으로 인해 과일의 경우 남는 店鋪에 買參人이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채소의 경우에는 仲買人 2人 1店鋪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적체현상을 빚고 있어서 仲買人들의 원성이 매우 큼니다.

과일은 指定都賣人當 仲買人數를 보면 D靑果 3名, H靑果 10名, G靑果 121名, S靑果 74名, 農協은 68名 등으로 總 276名으로 과일은 부족한 仲買人에 비해 上場된 많은 물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하여 남는 182個 店鋪에 매참인을 입주시켜서 당국의 묵인하게 영업을 해 온 것이 그 동안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매참인들은 仲買人들로서의 稅制惠澤도 받지 못하고 전화 시설도 없는 등의 많은 어려움과 갖은 불편을 7年여 동안 겪으면서 서울市民의 생활 안정을 위해 農産物 유통의 효율의 높이는 등 農産物 전문 유통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農林水産部에서도 지난 6月 발표한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기본 계획에서 上場競賣制度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仲買人數를 확보해야 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에 거래 실적을 평가해서 능력 있는 매참인 및 豫備 仲買人의 仲買人化를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局長님께서서는 上場競賣制度의 실시로 품목별 부족한 중매인을 확보하고 매참인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그 공적을 인정하여서 農水産物 유통구조 개선의 차원에서 우수 매참인들을 시급히 仲買人으로 전환시킬 방안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고 채소의 경우는 위에서 질문 드린대로 부족한 店鋪로 불편을 겪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매인들이 1人 1店鋪를 사용할 수 있도록 店鋪施設을 增設하여 입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듭 答辯해 주시기 바라고 農林水産部 農水産物 流通局이 91年 6월에 밝힌 도매시장 正常化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매가 쉬운 품목부터 上場 競賣 전면 실시 품목으로 지정해서 3段階를 報告하신 대로 나누어서 실시한다는 管理公社 및 서울市가 제출한 계획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第1段階로 물론 91年 7月1日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과, 배 등 과실류 10個 품목이고 수박, 참외 등 과채류 5個 품목, 오이, 호박 등 포장채소류 6個 품목 등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第2段階 92年 1月 1日부터는 잣, 대추, 은행 등 과실류 12個 품목, 양파, 상추 등 채소류 14個 품목, 느타리, 표고 등 버섯류 3個 품목이 시행될 예정에 있고 制3段階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시일은 아직까지 미정이나 무, 배추, 양배추, 과 등 차량 단위의 거래 품목을 포함한 競賣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上場競賣를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계획에는 經濟性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仲買人 수를 확보하고 거래의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제한된 수의 仲買人을 指定한다는 등 도매시장별로 부류별 적정 중매인 수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法律 제23조에 의거하

면 중매업은 開設者가 許可하게 되어 있고 仲買業 許可를 얻기 위한 許可基準을 동법시행령 제18조의 「農水産部長官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증금을 納付할 수 있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있는 자」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별도의 規定으로 중매인 수의 定數에 관하여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는 중매인 정수제로 중매인수를 강제적으로 제한했고 본위원이 중매인 정수제에 관하여 요구하여 제출한 서울시의 자료에도 분명히 중매인 정수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그 동안 농안법에도 없는 중매인정수제로 중매인수를 강제로 제한하여 묶어 놓은 것은 어떤 법과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다음으로 국장은 중매인 정수제의 도입 경위가 어떤 법과 규정을 근거로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상장경매 제도의 조기 정착과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매인 정수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 시간이 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네, 수고하셨습니다.

李元局 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産業經濟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李元局 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한 답을 해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書面으로 확실하게 答辯을 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단지 하나 仲買人들이 1人 1店鋪를 갖지 않고 2人 1店鋪 또는 3人 1店鋪를 해서 店鋪數를 더 증설할 용의는 없



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증설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이해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農水産物都賣市場과 협의해서 그러한 내용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매참인들이 仲買人으로 昇格한다든가 仲買人이 나가는 경우에 그러한 물량을 가지고서 현재 있는 店舖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店舖를 새로이 우리가 증설 설치해서 이것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타 仲買人 定數를 책정한 근거라든가 또는 優秀 매참인을 중매인으로 승격하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매인 定數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答辯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局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질문했던 直販場 建立 차질에 대한 것은 口頭를 答辯해 줄 수 있습니까?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지금까지 각 區廳에다가 지시해서 直販場 건설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 되었느냐 하면 區廳에 일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直販場을 건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도시계획국에 이것을 보냅니다. 도시계획상 어떤 저축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다른 관련국에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區廳에다가 그 지역의 民怨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구청에 묻습니다. 일단 區廳에서는 그런 부지가 있으면 우선 우리한테 설정을 해서 報告하고 民願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을 하는 區廳도 있고 판단을 하지 않고 보내는 區廳도 있습니다.

그래서 民願關係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 보내는데 현

실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고가 오면 그 지역을 또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전혀 그 민원을 해결할 만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도저히 해결할 대책이 없다 하면 그 지역을 제쳐놓고 다른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주택밀집지역 내에는 이러한 시설이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住宅으로부터 큰 道路를 격해 가지고 떨어져 있다든가 또는 주변의 교통 체증이 유발되지 않을 그러한 장소를 선정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區 1直販場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아까 報告를 드렸습시다마는 農協·水協·畜協 등 해 가지고서 현재 10個 共販場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중복해서 직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鍾路, 中區 지역 같은 도심지역에는 直販場을 개설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변두리 지역으로서 農水畜産物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民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닥뜨려 봐야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檢討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네, 감사합니다.

지금 5分前인데 다른 分科 관계도 있고 조금 있다가 제가

委員님들한테 말씀드릴 것도 있고 점심시간도 되었으므로 일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5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委員長 白昌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發言申請하신 金成奐 委員님으로부터 質疑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金成奐 委員;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현대 市民 생활의 改善과 環境保全을 위해서 장려해야 되고 또 보급도 앞으로 확대해야 되고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市에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급을 늘려 아까 그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95年度까지는 현재의 3배가 넘는 50萬톤에서 150萬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실정을 보면 新都市나 아파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고 또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아파트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一般住宅 지역은 시공업자들이 수지타산을 이유로 해서 일정지구의 家口數가 어느 정도의 이상이 되어야만 시공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 증가하여 住民 부담이 차별이 나게 加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 설치 비용이 千差萬別하여 住民 民願의 소지가 되어 있고 우리 市議員들도 부닥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設置 家口數에 관계없이 設置 利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통일된 가격으로써 필요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없으신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한 가지는 零細民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支援改善策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昌鉉; 金成奐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産業經濟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도시가스 사용 家口數가 급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全市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모든 家口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매설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上水道管의 경우에 지금 서울시내 상수도 공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供給管 매설이 萬 8,000km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관은 그것의 한 15%정도에 불과한 2,700km가 현재 매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市로서는 모든 사용 희망가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주요 幹線道路에 공급관을 매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供給管 附設計劃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회사가 하나의 營利會社인 만큼 회사별로 투자를 급속히 늘려 나가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컨데, 도시가스는 지금 供給管을 투자했을 때 投資費 회수기간이 한 10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사용 가구 수가 점차 늘

어나면서 공급관의 투자비 회수가 좀더 빨라 질 수 있겠습니까  
다마는 현재는 供給管의 投資費 回收가 한 10年 동안 걸린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난방용이 별로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취사용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서 이 投資費 回收가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용가구가 많은 지역 지금 바로 金成奐 委員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단위 아파트 지역이나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관을 매설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합니다마는 單獨住宅地域의 경우에는 공급관 매설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住民들의 불만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각 회사별로 市에서 일단 96년까지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현재 22%에서 50%까지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향후 5개년 계획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96년까지 50%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市에 제출토록 지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일부 들어와 있는 내용상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92년부터 96년까지 總 투자 액수는 2,136億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만 서울시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한 50%로 높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92年度부터는 현재 單獨住宅 지역이라도 공급관 配管이 안되어 있는 주요 간선도로를 계획배관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計劃配管을 한 다음에 투자비 회수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인근 需要家에게 적극적으로 수요 개발을 하면서 弘報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의 供給 使用數率을 현재는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사는 단독주택지역에다 가스 공급관을 문었을 때 초 년도에 한 20가구가 사용하고 다음 연도에 한 10가구가 더 사용해서 30%의 이익을 냈다. 30%의 사용 收益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스회사가 투자비를 회사에서 재투자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 開發을 위한 弘報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방금 지적 하셨듯이 零細民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가스사용 시설을 사용 가구가 신청했을 경우에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80만원에서 한 120만원정도 또 煖房을 할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비 별도로 7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사용하고 싶은 가구라도 財政的인 부담 때문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지원 대책으로서 政府에서 가지고 있는 石油事業基金을 需要者 金融으로 이것을 대거 돌려서 需要者에게 金融支援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강구해서 動力資源部에 建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動資部の 의견은 긍정적으로 이것을 수용해 주겠노라고 하는 答辯입니다. 다만, 작년에 걸프전 사태로 인해서 석유사업기금이 거의 다 바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까지의 석유사업기금만큼 충분한 액수의 석유사업기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보다는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석유사업기금의 지원액수가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政策資金이 96년도까지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사업기금에서 도시가

스회사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 가구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했기 때문에 타 정책자금이 금융지원대상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용에서는 배제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석유사업기금의 지원이 충분치 못할 때에는 政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으로 도시가스공급사용시설에 대해서 지원대상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建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비용이 千差萬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급관으로부터 사용가구까지 배관길이 또는 주택의 형태 등으로 해서 이것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통일 시킨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집에서는 왜 나는 많이 내느냐 먼 집에서와 똑같이 내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市로서는 다만 類型別로 單獨住宅의 모형별, 또는 多世帶住宅, 또는 共同住宅의 모형별로 해서 이것을 定型化 해 가지고 그 定型化 범위 내에서 融通性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러한 制度를 모색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年度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서울 市內 전체 도시가스가 공급 가능한 家口를 전체 家口數의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高地帶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할 地域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로 보고 있는데 96年度까지 전체 가구의 50%를 보급한다는 것은 공급가능 가구의 약 70%를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회사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석유사업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이것을 공급되도록 하겠고, 또 그간 배관이 안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배관 투자계획을 우리가 세

위 가지고 미리 미리 각 구청에다 알려져서 住民들이 나는 몇 년도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弘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浩 幹事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浩 委員; 대별을 해 가지고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부분이 지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요 事業費 現況에 보게 되면 油印物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시가스 출자금 20億원 해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 나간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용 내역이라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答辯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항간의 얘기가 앞으로 한 50億원 정도 더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이 油印物 上에 나오지 않았습니까만 그 점에 대해서도 아는 바 있으면 명확히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난번에 社會가 떠들썩하게 했던 택시미터기 관계 요금관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는지 하고 그런 미터기를 제작을 한 업체수가 몇 개 인지, 또 현재 부착을 해서 달리고 있는 택시 수는 몇 대인지, 이것은 이 사안으로 봐서 國民이 政府를 불신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擔當關係課長은 물론이고 局長님께서도 그 업체에 직접 가서 가지고 現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中小企業 育成 支援資金 해 가지고 1965年度에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올해 10億원이 조성이 되어서 현재



한 40億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 局長님께서서는 중소기업 한 업체에 주더라도 이 10億원 갖고 많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인데 대기업에는 수 백 억원, 수 천 억원을 주면서 서울시 적어도 산업국의 전체금액을 연간 10억원을 해 가지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中小企業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局長님께서서는 이 금액이 너무 적으니 많은 금액을 좀 더 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가내공업으로 보서는 5,000萬원 범위 내에라도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이 制度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企業體들은 모르고 있는게 태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이 있으니 좀 쓰십시오 하고 弘報를 하신 적이 있는지 했으면 몇 번 정도 하셨는지 그걸 答辯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번에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일체 요건을 갖춰 가지고 救濟해 주는 두 번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 현재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20억원 출자에 대한 것하고 택시관계 하고 중소기업육성책,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씩 구별을 해서 答辯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答辯이 끝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會議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白昌鉉; 崔浩 委員님의 質疑에 대하여 産業經濟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한국가스공사의 出資關係는 이것이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설치가 됐는데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는 왜 생겼느냐 하면 좀전에 남사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다가 이것을 천연가스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자, 그리고 천연가스를 도입해서 발전형으로 쓰자 하는것 때문에 平澤에 천연가스 인수 기지가 생기면서 이 平澤의 천연가스 인수기지와 平澤으로 부터 인수한 천연가스를 각 발전소 또는 各 都市에 공급해 주는 業務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공사는 國家, 地方自治團體와 韓國電力公社 이 3個機關에서 공동 출자 하도록 되어 있는데 第1段階 가스공사의 사업으로 무엇을 했냐 하면 首都圈 LNG 供給事業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第14次 經濟長官會議에서 首都圈 LNG 供給 事業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各 機關別 출자금을 확정 지었습니다. 전체 사업소요자금이 얼마였냐 하면 900億이었는데 政府가 51%인 459億을 출자하고 그 다음에 仁川市 및 京畿道가 6%인 54億을 출자하고 韓國電力이 28%인 252億을 出資 하도록 하고 서울特別市는 平澤 인수기지로 부터 그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市도 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서 15%인 135億을 부담하도록 第14次 經濟長官會議 84年 8月 24日 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市가 135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35億 중에서 현재 120億을 우리가 出資했고 아직 미납액이 15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韓國가스公社 第2段階 사업으로서 전국 LNG 공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第4次 經濟長官會議 90年 4月 13日에 열린

經濟長官會議에서 결정이 됐는데 즉, 平澤 인수기지로 부터 京畿道 仁川市 서울시만 공급하던 LNG를 大田이라든가 忠南 지역 平澤 이남 지역까지 공급하는 사업이 전국 LNG 공급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은 2,374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까지 出資하게 돼 있는데 2,374億중에서 政府가 51%인 1,211億을 出資하고 仁川市の 11個 市道에서 9%인 202億을 出資하고 韓電이 39%인 926億을 出資하고 서울시가 35億을 出資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出資 비율은 1%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11% 인가요? 몇 %지요? 第2段階 부분만 하면 그게 한 12%되는 것이죠. 그래서 第1次 135億원과 2段階 사업 35億원 해서 서울시가 한국 가스공사에 出資할 금액이 170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段階 사업인 35億은 아직 우리가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나머지 1段階 미납액 15億원과 2段階 出資金 35億원 합해서 50億원을 2000年 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分割해 가지고 出資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崔浩 委員; 그러면 현재 20億원 나가는 것은 먼저 것이라 이 말씀이죠?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그렇습니다. 1段階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崔浩 委員; 政府에서 부담하는 것이 51%이고, 京畿道하고.....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서울시가 15% 仁川市와 京畿道가 6%, 韓電이 28%입니다.

○崔浩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다음 것은.....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다음에 택시 미터기 요금관계는 이 미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터기에 대한 國家檢

定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計量器는 計量器 메이커가 이것을 製作하면 製作檢定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 製作檢定은 어디서 받느냐 하면 國立工業試驗院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國立工業試驗院에서 製作된 計量器에 대해서 檢定한 결과 합격이 되면 거기다 刻印을 찍어 줍니다. ‘검’자라고 하는 각인을 찍어 줍니다. 그래야만 그 計量器는 計量器로서 有效하게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미터기의 경우는 檢이라고 하는 刻印이 찍혀져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메이커가 만들어 가지고 國立工業試驗院에 가서 製作檢査에서 합격을 받은 計量器를 實需要者가 그걸 사 가지고 택시에다 부착을 합니다. 부착해서 그냥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업시험소에 와서 走行檢査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이 서울시 공업시험소는 이미 有效 판정난 합법적인 계량기에 대해서 주행거리가 맞느냐 틀리느냐 예를 들어서 10km를 뛰었을 때 과연 10km로 계량기에 표시가 되느냐 이것만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주행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문제가 됐던 그 택시 미터기는 九老區에 있는 서울미터산업에서 만든 코스모스 제트썰븐이라고 하는 機種입니다. 이 機種이 여러 가지 造作을 하면 그것이 이미 빈차로 갈 때 작동이 안돼야 하는데 빈차로 가면서 안에서는 주행으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造作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미터기를 제작한 회사에서도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 그것이 서울미터산업이라고 하는데서 근무했던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입력했던 技術者가 어떤 이유로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미터기 산업 회사에다 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터기 산업에서 그

計量器를 갖다 놓고서 그런 식으로 이걸 造作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造作이 가능한 미터기였었는데 그 造作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造作이 가능한 미터기였습니까?" 라고 오히려 反問할 정도로 택시 기사들도 그 造作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사화가 되고 報道가 되면서 택시 기사들이 비로소 알게 됐는데 여하튼 미터기가 이미 造作 방법을 기사들이 알아 가지고 그렇게 조작하면 市民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터기 改造計劃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터기가 전국적으로 그동안 코스모스 제트제본 기종이 萬 5천대 정도가 보급이 됐는데 서울시내에 約 5천대가 보급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량기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량기입니다.

國立工業試驗院의 합격 必證을 받은 계량기이기 때문에 그 계량기를 그래서 이것을 폐기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법한 계량기이기 때문에 그 미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을 일부 바꿔 넣어 가지고서 그런 造作이 불가능한 계량기로 지금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치는데 필요한 들어가는 비용은 칩 값을 포함해서 9,200원 그리고 또 고친 다음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走行檢査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走行檢査를 받았기 때문에.....

○崔浩 委員; 局長님! 우리나라 公務員들이 틀려먹은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물은 事項은 국장이 현장에 가 본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 또 뭐냐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공

업시험연구원에서 했다는데 그 연구한 담당 책임자를 問責한 바 있습니까?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國立工業試驗院은 工業振興廳機關이기 때문에.

○崔浩 委員; 그럼 産業經濟局 所管 아니지요? 바로 우리나라 公務員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아니 그래서 좀 끝까지 설명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이 미터기를 빨리 회수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市中에 유통되는 미터기를 9,200원의 개선 비용을 미터기 서울제작회사가 전액 부담해 가지고 이것을 고치고 우리 市工業試驗所에서 走行檢査를 받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崔浩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들어 보나마나입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사람을 때려 죽여 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市中에 안 나오도록 해야지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서는 공업시험연구소의 책임이라고 돌리겠지요. 네? 바로 그러한 病弊를 公務員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서울미터산업에서 말씀이지요. 그런 정도의 造作 가능한 이것은 大衆을 상대로 해서 전 國民을 상대하는 건데 그 정도도 자기네 自體 檢査도 안 거치고 出庫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工業試驗研究所에서 檢査員이 분명히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造作이 가능해서 요금이 더 나오게 돼있다 이겁니다. 2,400원 나오는 데가 300원 정도 더 나옵니다. 約 10%가 넘습니다. 造作을 하면 기사가 約 11% 내지 12% 더 받아 간다 이거죠 네, 이유 불문코 無知의 國民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政府를

얼마나 不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局長께서 그 내용에 상환비용 9,000원 얼마 물리고 어찌고 그걸 제가 묻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공무원을 믿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국가공무원이 돼 달라 이 말씀입니다.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局長께서 그 試驗院 公務員에다가 강력히 항의를 했다든지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서울미터산업이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회사라면 이걸 아마 檢察 搜查 해서 작살 냈을거요. 얼마나 이 會社는 힘이 센지 모르지마는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글썄요, 그런 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崔浩 委員; 자기가 만드는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造作을 만약에 그것을 뜯어 가지고 다른 부속을 집어넣어서 造作을 해서 운전수가 써 먹었다면 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自體를 가지고 造作해서 對 國民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기계를 만들어 준 會社가 이 會社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십니까?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수궁할 수가 없습니다.

○崔浩 委員; 왜 그렇습니까?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기계가 잘못된 건 분명한데요 이 計量器라고 하는 것이 國立工業試驗院에서 합격이 되면 法的으로 有效하게 市中에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崔浩 委員; 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그런데 저희도 미터기 製作會社에 처벌관계를 알아 봤습니다. 이 計量器는 이것이 形式 承認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품목이 아닙니다.

○崔浩 委員; 局長님!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國民은 뭘 모릅니다 미터기는 지금 서울에도 다 있는데 公器입니다. 公器,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을 하나 갖다 놓고 물건을 얹었는데 이 서울이 잘못돼서 더 적게 달려 가지고 판매하는데 잘못 되었다면 어떻게 누가 責任을 져야 되지요? 서울 만든 사람이 責任을 져야 되지요? 택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國民이 이용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事由야 어떻게 되었든, 보턴 몇 개 눌러 가지고 요금이 더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그 自體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局長께서는 잘못 되지 않았다고 지금 答辯을 하시는데.....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崔浩 委員; 結果論입니다. 이것은 무슨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론이에요. 結果論, 結果가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을 가지고 國民을 사기 치는 것입니다. 政府가 同調해서 아시겠어요? 기계를 만약에 내가 이것을 뜯어 가지고 기계를 다시 만들었다 운전수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운전수 잡아넣으면 돼. 보턴 몇 개 눌러서 요금을 근 10%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기계를 工業試驗研究所에서 許可를 해주고 서울시에서 走行만 하니까 괜찮더라.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造作方法 어느 정도 까다로왔는지 내가 TV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어 보기로는 보턴 두세 개만 누르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보턴 10개를 누른다 하더라도 그 보턴을 눌러서 造作해서 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택시미터기는 중요한 겁니다. 용달차도 마찬가지고.....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저희들이 이것을 시중에 그러한 計量器가 政府의 공인 試驗機關에서 합격돼 가지고 유통되는 것



을 우리 서울시 公務員들이 발견해 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叱責하신다면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택시미터기를 만들어서 政府가 이 計量器를 전문적으로 檢定해서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政府가 설립한 국립공업시험연구원에서 합격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당연히 그러한 造作이 안되는 미터기로 봤지 그것을 造作되는 미터기로 보고 우리가 檢査를 해보지 않았습시다. 그러다 우연히 이것이 발견 됐는데 造作方法이 말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구분표시 창에다 1番이라고 하는 구분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빈차 보턴을 또 누릅니다. 그러면서 또 走行보턴을 또 누릅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구분 및 빈차 보턴을 동시에 눌러 버립니다. 네번째 다시 또 빈차 보턴을 또 누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乘客이 탑승하면 11보턴을 누른 다음에 또 빈차 주행보턴을 또 누르고, 그리고 나서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듣고서 제가 實物을 갖다놓고 해봤는데 저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시다. 專門 技術者라야만 여기에 대한 高度의 專門 技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만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崔浩 委員; 저기.....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제가 지금 저 시중에 유통되는 정부가 합격 도장을 찍은 계량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왜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전에 철저히 검사해서 그걸 발견 못했느냐 하는 부분을 질책하신다면 전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변명하고자 하질 않습시다. 그러나 서울시로서는 이러한 조작 가능한 계량기가 정부의 합격도장을 받고

서 이것이 유통되는 것을 빨리 시급히 시정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改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崔浩 委員; 알았어요. 本委員이 직접적으로 그 기계를 조작은 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하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자꾸 딴 소리해서 제가 못했는데 TV상으로 봤을때 보던 두 개를 딱 누르더라도 기사 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 딱 누르고 나서 두 대가 같이 출발해 가지고 2,400원 요금이 나왔는데 저것은 2,700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문제는 어디에 있든 간에 주행거리 檢査했지요?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崔浩 委員; 市에서 했지요. 문제가 나왔지요?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走行部門에서요?

○崔浩 委員; 아니 어떻게 됐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주행거리를 시험을 했는데 물론 공업시험연구원에서 기계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전부 따로 따로야, 이래서 이 사람이 하면 이리 도망가 버리고 이리하면 요리 도망 가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립공업시험원 이것도 그 자체에서 자기네들 시험을 해 가지고 나와야 돼 그래야 責任追窮을 딱 할때는 바로 들어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기계시험은 딴 데서 하고 주행은 딴 데서 하고 그럼, 문제가 있으면 서로 미루어 버린다고 그런 弊端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음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이것은 對 全體 國民과의 문제입니다 지금

萬 5,000臺가 나갔다 그러지 않아요. 만 5,000臺가 나가서 지금 굴러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部署로 돼 있는 擔當局長은 痛感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부당한 요금을 지급을 하고, 타는 승객이 없다고 이 장소에서 장담 못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擔當部署局長은 이 문제에 대해서 責任을 痛感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조건 거기에 따른 보턴 7個 누른다, 8個누른다 그런 얘기하실 필요 없고 안 되도록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나쁘게 얘기하면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그런 答辯資料를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責任을 지고 責任있는 答辯을 하시고 일을 하셔 달라 그 얘기입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현재 유통되는 것을 조속히 이걸 回收해 가지고 이것을 造作이 불가능한 상태로 改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改造가 된다면 走行檢査를 이 사람들이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만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행검사까지 완전히 다시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崔浩 委員; 제가 지금 말씀이지요, 어떤 會社에서는 팜플렛에 택시 營業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고 이것을 오히려 선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미터기 自體를 제 눈으로 본 건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나는 제일 통탄하는 일이 일반 零細業者들 조금만 違法하면 힘없고 돈 없으니 까 사그리 조지는데 이런 중대한 착오가 났는데도 어떻게 이

서울미터기산업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버젓이 해명 한마디 제대로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요 단추만 눌러 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우리는 7固까지 눌러가면서 營業하라고는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택시 미터기는 公共 公器로서 말이지 그러한 造作이 가능하다는 그 기계를 만들어서 國家에다가 납품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業體에 지금 봤을 때 전혀 어떠한 制裁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그건 工業振興廳에서 이 제품에 대한 形式 承認을 해줬었는데 이것이 적발된 다음에 形式 承認을 취소했습니다.

○崔浩 委員;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감히 제가 市議員으로서 얘기지만 이 大韓民國의 病弊가 뭔지 아십니까? 庶民, 國民이 國家를 잘 안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내용을 알고 하니 다소의 이해가 같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르고 택시를 타는 市民은 國家를 어떻게 보겠느냐 말이나 어떻게? 제 말 납득이 갑니까? 局長님! 이유는 관계없다 어떤 택시 기사가 기계 뜯어 고쳐서 만들은 게 아니고 보턴 몇 개 눌러가지고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게 기계를 許可해줘 가지고 지금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팽배되어 있습니다. 택시 타면 불안해요. 돈 더 나오고 하는지 거기에서의 民願의 소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本委員이 나쁘게 얘기하면 公務員들 마다 목에 힘이나 쥐 가지고 회전의자나 돌리고 앉아서 허 웃고 가라! 와라! 혹시 그렇게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言論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몇 번 텔레비전에 떡 나오더니 요새 조용해요 아직 다 고치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은 카메라 고발해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니만 이견 대國民과의 상대에 한 두번 떡 텔레비전에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 그것도 나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言論도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大大的으로 弘報를 해서 당장 뜯어 고쳐야 돼. 당장 뜯어고치고 뜯어 내 버리고 다른 걸 달아야 됩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質問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다음에 서울시내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이 지금 조성액이 미미하고 또 1個 업체당 지원 한도액이 5,000萬원으로 매우 소액이고 그리고 이러한 制度가 있는지를 기업체에선 모른다, 홍보를 했느냐 하는 것을 質問 하셨습니다.

현재 아까도 업무보고 시간에 報告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40억 7,9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造成된 40億 7,900만원은 그 동안 市費로 지정한 것이 27億 2,000萬원이고 그 동안 27億 2,000만원의 이자가 징수된 것이 13億 5,900萬원 해서 40億 7,900萬원입니다. 市費 年度別 추진내용을 보면 1965年 최초로 千萬원을 出捐했고, 또 70년도에 가서 5,000만원을 출연했고, 71年度에 6,000萬원, 그랬다가 중단했다가 또 81年度에 3億원, 그리고 82年度에 3億원 했다가 또 중단 했다가 90年度에 10億원 今年度에 10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우리가 계속 出捐하려고 합니다마

는 이것은 委員님들께서 이러한 豫算이 적극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략 생각하는 것은 향후 每年 10億씩 出捐金을 더 보태 가지고 향후 한 5年 동안에 해서 100億 원 정도는 運營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00萬원 限度額 결정한 것은 처음부터 5,000萬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5,000萬원이引上이 됐습시다마는 초기에는 1,000萬원 2000萬원 이렇게 限度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려고 하는 業體는 많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극히 적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다가.....

○崔浩 委員;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序頭에도 얘기 했습시다마는 서울시 전체에서 물론 政府次元에서의 銀行도 있고 다 있습시다마는 서울시에서 그래도 타이틀 자체가 中小企業 育成支援입니다.

이러한 타이틀 아래서 지금 1965年度에 發足이 돼 가지고 지금 와서 이것을 豫算書에 決算書에 내가 떡 들어 받아 보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그 은행에 제가 이렇게 가 보면 대기업 같은 데는 어느 재벌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시다 마는 우연히 銀行에 들렀더니 그 날 자금이 300億이 돌아 오는데 오후 5時 없어서 250億을 되받아 달라 이럽디다. 아침에 그 얘기가 왔대요 왔는데 이쪽 은행에서 툭툭거리니까, 그나마 50億도 안 가져오더랍니다.

本店에 자금담당부장이 있어요. 어느 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不渡를 못 내고 그 300億을 막아 줘요. 물론 돌려받겠지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해서 오후 5時 넘어서 300億이라는 것을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루가 됐던 한 시간이 됐던 그건 일개 은행입니다. 그런데 세계 5代 都市에 속하는 서울市에서 産業經濟局에서 중소기업을 도운다 해 가지고 돈 10億을 가지고..... 타이틀을 앞으로는 빼십시오, 없애 버리십시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괜히 얼굴 낸다고 이름만 떡 걸어 놓고 말이지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대폭 증액을 해 가지고 오히려 가스에 나가는 돈 20億 그런 건 政府에서하라 그러고 이 어려운 零細業者들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담보, 담보 찾지 말고 기업체 연륜이 있습니다.

經營監察 연륜이 있어요. 營業 監察 5年以上 되는 사람 信用으로 한 5,000萬원씩 쥐 봐라, 그 사람들 별로 안 떼먹고 다 갚는다고, 5年 이상 한 달이라도 營業했으면 갚습니다. 이 건 내가 볼 때 잘 貸出을 안 하는 것은 담보가 없다 이거야, 물론 저는 그 대출 요건까지는 局長님도 그냥 빌려 줄 權限도 없고 하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기금 자체를 대폭 局長님이 힘닿는 데까지 하셔 가지고 이 基金을 좀 늘려 가지고 종업원이 많고 資金力이 있고 큰 회사는 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은행 같은 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 비율을 높여라 하니까 돈 필요 없는 회사, 튼튼한 회사에다가 빌려주고는 프로테이지만 올립니다. 말 그대로 없는 사람들 손발 비벼가면서 하는 영세업자들 좀 빌려주라 이거야 그렇게 이 산업경제국에서 運營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타이틀이 育成支援 아납니까? 앞으로 이것이 원활하게 아주 잘 되어 줄 것을 제 개인이 아니라 전체 영세업자들로 보더라도 서울특별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1/4입니다.

물론 가내공업이 변두리에 가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

서 弘報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序頭에서 局長님께서 增額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崔浩 委員; 그건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委員님들께서 積極的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요구한 액수가 豫算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崔浩 委員; 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해서 문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잘 알겠습니다.

○崔浩 委員; 그리고 무등록공장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간단히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무등록 공장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 번 구제된 實態를 모르기 때문에 擔當課長인 商工課長으로 하여금 대신 答辯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崔浩 委員; 네, 좋습니다.

○商工課長 李重吉; 商工課長입니다. 무등록공장 등록관계는 昨年 9月20日부터 11月 30日까지 70日이란 期限을 줘 가지고 工場所在地 管轄 區廳에 登錄을 하도록 상공부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서울시 내에 등록된 공장은 3,856개소 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瑕疵 없이 공장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949개소고 改善條件附 현재 어떠한 違反事項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改善을 하겠다 이러한 條件을 붙여 가지고 登錄한 것이 389個所 그 다음에 이것은 改善할 여지가 없다. 非工業地域에 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移轉을 하겠다. 이 條件附로 登錄한 것이 2,518個所 였습니  
다.

저희가 昨年度 1月 1日字로 登錄되지 않은 공장이 모두 萬  
105個였었는데 이 70日동안에 登錄된 것이 불과 3,856個所  
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商工部에 다시 建議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登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나머지 공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登錄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商工部の 承認을 다시 받  
아서 今年度 4月 1日부터 4月 30日까지 추가 2次 登錄을 받  
았습니다.

2次 登錄을 받아 본 결과 2,306個所の 공장이 등록이 되었  
습니다.

○崔浩 委員; 별도로, 추가로?

○商工課長 李重吉; 네, 추가로.....

○崔浩 委員; 2천 몇개요?

○商工課長 李重吉; 2,306個所요, 그래서 追加 登錄가 工場이  
兩次에 걸쳐서 된 공장이 모두가 6,162個所가 새로 登錄이  
되어 있습니다.

이 6,162個所の 登錄된 내용을 분석을 보면 공장으로써 다  
만 1979年度 工業配置法이 생길 당시에 당시 이후로는 생겼  
지만 적법한 지역에 적법한 건물에 이러한 登錄을 못한 이런  
공장이 1,269個所였고 자기네 조금만 개선하면 공장의 登錄  
要件을 갖추 수 있는 것이 620個所, 그 다음에 앞으로 移轉  
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안건을 붙여서 登錄한 것이 4,273個  
所입니다.

移轉 條件附는 1年 내지 3年內에 移轉을 해 나가겠다하는  
條件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工場登錄을 管轄하는 管

轄區廳으로 하여금 이전 條件附로 登錄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每 년도별로 釐겨서 이전조건에 이행이 되도록 監督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改善 條件附 登錄工場에 대해서는 關係法에 의해서 일단 처벌을 받고 正當化되는 적법화 되는 이런 節次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登錄 事項을 報告 드렸습니다.

○崔浩 委員;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 登錄에 되고 안 되고 要件이 현재 그 위치에서 條件이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登錄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장소에 따라서.

○商工課長 李重吉; 예는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공장은 移轉 條件附로 해서 登錄을 받아 두도록 되어 있는데.....

○崔浩 委員; 아니 아니 移轉登錄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한 해서 얘기고, 아시겠어요? 서울시가 아니고 京畿道 라든가 이런 데에도 工場登錄을 못 하고 있다가 지난 救濟期間에 登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移轉 條件이라는 것은 서울시일 경우만 局限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잘 모릅시다마는 登錄 要件이 어디 에 있든 간에 지금 이 수치로 보더라도 1次登錄에서 한 것이 949個가 등록이 되었고 2차로 2,306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등록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끝났 죠?

○商工課長 李重吉; 네.

○崔浩 委員; 期間이 끝났지요?

○商工課長 李重吉; 끝났습니다.

○崔浩 委員; 이제 안 되지요?

○商工課長 李重吉; 더 이상은 商工部에서 登錄을 받을 수 없

다는 애깁니다.

○崔浩 委員; 안되죠?

○商工課長 李重吉; 네.

○崔浩 委員; 바로 그 점을 指摘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은 우리 나라의 公務員들이 法이나 머리를 그 따위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공장이 登錄이 要件이 돼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登錄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期間을 놓쳐 버렸어요, 그 기간만은 登錄 要件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영원히 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제말 알아듣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1차에서 949個가 登錄을 했는데 2차에서 2,306개가 登錄을 했습니다. 그 만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登錄을 못 하도록 왜 막았느냐 이 말입니다.

비단 내 이 말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편하게 해주어야 돼. 要件이 되면 항상 登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기간 설정을 누가 한겁니까? 왜 기간 설정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이나 국장 답변해 보십시오. 그 기간을 왜 정하느냐 이 말이죠, 要件이 되는데 몰라서 못했다 이거야 그 사람들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商工課長 李重吉; 崔委員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또 建議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사실상 登錄을 못한 공장들에 대해서 追加로 더 登錄할 수 있도록 期間을 延長을 해 주십시오하고 協議를 했었습니다.

○崔浩 委員; 제가 얘기는 期間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근본 말씀드리고자 하는 趣旨가 있습니다.

그 期間이 문제가 아니고 登錄의 要件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비단 무등록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등록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먹고살기 바쁘고 급하다 보니 그 등록 기간을 놓쳤습니다. 거기 등록 요건이 된 업체에 한 해서는 期間에 필요 없이 등록을 받게끔 법을 만들어 놓지 왜 그것을 꼭 기간설정을 해서 국민에게 불이익이 가도록끔 하느냐 이거야 가면 기간 끝났어 기간 끝났어 이게 많습시다.

물론 그 기간을 한정을 두고 해야 될 업무도 많이 있겠습시다마는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내가 볼 때 이렇습시다. 과연 擔當部署 局長이나 課長이 머리를 썼다면 949個 등록을 일차로 받았고 물론 改善을 해서 389個였습시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2,306個가 들어 왔으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3次, 4次 까지 등록 期間을 延長을 또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머리를 안 써 줬다 이 말입니다.

○商工課長 李重吉; 그러한 사항을 저희 서울시 입장으로서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국가정책상으로 國家 政策으로써 결정된 事項이고 첫째, 서울시 경우는 이렇습시다. 移轉 促進首都圈整備計劃法上으로 봐서 工場移轉促進地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새로운 신설이나 증설을 抑制하고 있습니다.

○崔浩 委員; 課長님!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단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 담당과장이면 과장 국장님께서 국장은 뭐 과장께서 아니면 담당 밑의 계장이나 이러한 수치를 봤을때 民意의 편에 서서 미등록한 사람이 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머리를 써서 이것 등록기간을 재연장을 하든지 왜 그러한 머리를 써 주지 못 했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商工課長 李重吉; 그 얘기는 솔직한 얘기로 建議를 했어요.

○崔浩 委員; 이 얘기는 建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물론 서울시에서의 權限에 한계가 있겠습니까마는 딱 부러지게 본 위원이 어저께 티켓관계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民意의 편에 서서 사실 이것은 이 議題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公務員들 너무 지금 權威意識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만에 여러 번 갔는데 臺灣의 商工部나 市廳에 들어가면 장화를 신고 오든 잠바를 입고 오든 딱 가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됩니다. 본위원이 직접 商工部 들어가고 해 봤지만은 너 어디서 왔냐고 쳐다 보지도 않았습시다 텔레비전에나 좀 나오고 이름 있는 업체에서 왔다면 아 그래요 이름없는 업체다 이거야 못들어 본 회사야 쳐다 보지도 않는다 그게 現實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해서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중소기업을 한다 해서가 아니라 공장에 떡 가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뭘 하나 걸어 볼까 그게 앞서 있습니다.

내 일일이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바르게 되어서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줘야 공무원들 월급도 나가고 국가가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社會가 生産하고 있는 中小企業體들이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외의 얘기입니다다는 參考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국장님이 아까 이 중소기업 영세업자들 특히나 이 부분에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이 금액이 책정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간곡히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 기금 많이 마련해 가지고 담보가 모자라더라도 좀

신용으로라든지 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꼭 제가 그걸 부탁을 드리고 무등록 공장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근본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꼭 과장이나 국장이 잘못 했다가 이전에 왜 韓國의 制度가 그렇게 복잡하냐 이거야, 期間 딱 만들어 놓고 期間 넘으면 안돼!

要件이 되면 끝나고 해주어야지 그렇게 좀 改善을 해서 國民이 편하게 자꾸 어렵게 될 만들어 놓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産業經濟局의 所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좀 부탁을 하고 내 말은 마치겠습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다음에 李基烈 委員님께서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基烈 委員; 李基烈입니다. 제 質問은 擔當課長께서 答辯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質問은 農產物 增產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市內 변두리를 다니면서 보면 汚染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汚染된 農地를 파악해 보셨는지요. 파악 하셨으면 얼마쯤 되는지요. 또 파악 하셨으면 그것은 管理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만약에 거기서 쌀이나 야채가 生産이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급되는 대로 놔 두는지 아니면 어떻게 폐기 처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방금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3페이지의 中小企業 育成 指導 支援이라고 이렇게 써졌는데, 資金支援이 아니고 다른 育成方案이나 支援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또 하나 연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조금 있으면 이제 冬節期가 됩니다만 LPG나 輕油 그 연료가 定量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紙上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서울 市廳에서는 어떻게 管理를 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 부정된 定量으로 공급되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세 가지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擔當課長이 한분 한 분이 나와서 對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昌鉉; 李基烈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産業經濟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擔當課長이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農畜課長 崔熙周; 農畜課長입니다. 지금 李基烈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農產物 增產하는 土質汚染問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個別 農地에 대해서 汚染 實態를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管理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 政府次元에서 農產物에 대한 殘留 農藥許容 基準值를 定해 가지고 輸入品을 위주로 해서 이 汚染된 農產物이 流通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監視하는 그러한 初期 段階에 들어가 있고 汚染된 農產物에 대해서는 收去 廢棄 등의 措置를 하지만 이 農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實績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다른 法令과 또 農林水産部에 問議도 하고 해서 좀더 精確한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追後에 다시 추가해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基烈 委員; 발전하는 의미에서 노력합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中小企業 資金支援외에 다른 中小企業 育成支援策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중소기업체는 대부분이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생산활동이라든가 판매활동을 하기에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합으로 힘을 뭉치는 조합화를 저희들이 誘導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합을 組織하도록 促求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즉, 서울시가 아까도 報告書에도 있었습시다만 資金을 支援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支會를 中小企業中央會에다가 設立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億 5,000萬원 정도의 資金을 支援하면서 여기에다가 相談室이라든가 各種 情報, 情報紙라든가 資料를 各組合을 통해서 組合員들에게 資料를 提供하도록 이렇게 機能을 賦與를 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中小企業의 組合의 製品은 中小企業에서 생산되는 物品을 우선 購買하도록 官公署 또 政府機關 이런데서 우선 購買를 하도록 저희들이 促求, 協助要求를 해서 支援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工藝工業을 育成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工藝品 競進大會도 實施해 가지고 優秀 工藝品 生産者에 대해서는 賞金도 주고 施賞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수 기능인 競進대회도 해서 優秀 技能人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賞金도 주고 育成資金도 支援을 해 주는 등 비교적 일반적인 事項을 저희들이 支援을 해 주고 있습니다.

中小企業의 技術적인 支援事業은 中小企業振興公團이 별도로 技術地圖 事業을 全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行政機關에서는 솔직히 技術的으로 어떤 指導를 할만한 能力이 없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 依賴를 해서 支援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燃料課長 金在宗; 燃料課長입니다. 李基烈 委員님께서 質疑한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겨울철 盛需期가 되면 혹시라도 燃料가 모자라지 않겠느냐 市民들 생활을 불편에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내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로는 88年度에 燈油波動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걸프전쟁 때 약간의 油類需給上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油類需給 사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主油所라든가 代理店이라든가 또, 販賣所라든가 各 家庭에서 貯藏하고 있는 分하고 그리고 政府에서 備蓄하고 있는 備蓄分을 합치면 금년 겨울의 등유 사정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論議가 됐고 또 輿論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석유의 定量을 넣지를 않고 配達料를 못 받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L 석유 定量을 18L만 주고 2L는 配達料條로 받는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定量을 주되 배달료는 需要家와 배달하는 사람간에 適正價格을 策定을 해서 별도의 배달료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李基烈 委員; LPG에 대해서는.....

○農畜課長 崔熙周; LPG는 가스과장님께서 별도로 答辯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스課長 金致經; 가스과장입니다. 저희가 가장 LPG를 많이 사용할 때의 1日 消費量이 1,440톤이 所要됩니다. 이것은

92年度の 1月달을 豫想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판매소가 65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관돼 있는 것이 1,314톤 그 다음에 8個 充電所에서 保管하고 있는 것이 780톤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消費量이 되는 1,440톤이 된다고 그래도 저희가 한 1.5일分 정도는 備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基烈 委員; 定量 供給關係에도 LPG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가스課長 金致經; 거기에 대해서는 간혹 20kg 한통에 대해서 定量을 하지 않고 덜 채워 가지고 배달하는 것과 같은 事例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즉 서울시에서 탱크에다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計量器를 설치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運搬하는 過程에서 파손이 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判定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販賣所를 철저히 監督하고 團束하는 그와같은 次元으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별로 民願 事項이 없습니다.

○李基烈 委員; 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 質問은 이상으로 마치고 미비한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問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昌鉉; 네, 다음에는 丁鎭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丁鎭 委員; 丁鎭 委員입니다.

農水産物直販市場 建立計劃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中溪洞에 農産物 市場을 짓는 蘆原區 下溪洞 377番地 規模는 敷地가 8,401坪하고 建物이 4,000坪입니다. 여기는 255億원의 事

業費가 들어가지고 建設 및 運營은 農產物流通公社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농수산물 운영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지 만약에 유통공사에서 하다가 만약에 損失이 난다면 또한 서울시에서 이것을 부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또한 그 밑에 입니다. 倉洞의 農協 共販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運營은 農協中央會에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事業費가 250億 들었는데 여기서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여기 또한 앞으로 損失이 나거나 그러면 또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黑字가 난다면 서울시의 이익금으로 充當이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또 가스普及擴大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회사가 여기 圖表로 보면 다섯 個 회사가 있는데 서울가스회사는 鍾路, 龍山, 恩平해서 열한 個 會社가 됩니다. 열한 個 會社인데 여기 다른 데는 한 會社에서 11個 區廳 管轄을 하고 있는데 다른 江南 같은 會社에서는 두개 區 管轄만 하고 있는데 여기 서울가스公社에서는 열한개구를 管轄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不條理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서 各區에 出張所 비슷하게 이렇게 뒤 가지고 거기 出張所하고 需用家들 하고 이렇게 施設을 할 때 제가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施設을 해 준다는 條件下에 심지어 그 出張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돼 있고 住民들은 엄청나게 많은 施設을 要求하는데 供給을 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會社에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방대한 지역을 그렇게 줬는지 既得權이 그 會社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렇다면 너무 크니까 市에서 調整해서 아마 반으로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住民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는 것입니다. 제 質問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丁鎭 委員님 質疑事項에 대해서 答辯 올리겠습니다. 蘆原區 下溪洞에 建立한 農産物 直販市場과 倉洞에 建立할 農産物 直販市場 公히 이것은 蘆原區 下溪洞 것은 農水産物流通公社가 자기 資金으로 土地를 買入하고 거기다 自己 資金으로 建物を 지어서 자기가 運營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단지 이 지역을 宅地開發事業 할 때 流通物 設備地域으로 이것을 확정지어서 敷地만 알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倉洞 것 역시 農協中央會가 그 宅地를 買入해 가지고 거기다 직접 자기들이 建設해서 運營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兩個 公社 公히 損失이 나올 때는 自體 자기들의 損失로 끝나고 말고 서울시가 별도로 支援할 그런 責務가 없습니다.

가스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서울도시가스의 관할구역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도시가스의 관할 구역이 11개 구가 된 원인은 초창기 우리나라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는 민간인이 가스회사를 설립해서 공급할 그러한 여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도시가스 사업소를 직접 서울시의 한個 事業所로 이것을 發足を 시켜서 도시가스를 供給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서울시 시흥도시가스라고 그땐 名稱을 붙였었는데 그러다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도시가스의 供給에 民間 參與가 오히려 낮다 서울시는 막대한 資金이 자꾸만 投資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손을 떼자 해 가지고 그 당시 서울시흥도시가스를 서울도시가스에다가 賣却을 했습니다. 그때 시흥도시가스의 供給 區域이 지금 11개

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賣却을 했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만 유독 큰 지역을 管轄 해서 供給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이 供給區域이 너무 廣範圍 하기 때문에 미처 자기들이 적절하게 住民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事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積極的으로 우리가 指導해서 그러한 事項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단지 그 서울도시가스는 他 도시가스보다는 區域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投資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供給管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700km의 供給管이 埋設됐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1,272km가 서울도시가스 管轄區域의 供給管입니다.

그러나 區域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住民欲求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못 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指導 監督을 더 강화해서 그러한 부조리한 事項이라든가 또는 住民들에 대한 서비스의 質을 높일 수 있도록 對策을 하나 하나 세워 가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丁鎭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도시가스에서 한 線이 갔습니다. 한 線이 갔는데 예를 들어서 飲食店 같은 데나 해가지고 거기서 똑 같은 것 나뉘는데 심지어는 어느 내가 알고 있는 A라는 한 飲食店은 조금 크다고 해서 施設하는데 거의 1,300萬원 거기 안에 施設하는 것은 또 需要家가 負擔합니다. 거기 管들이 오는데에 가서 여기 가스를 많이 쓰니까 1,300萬원 까지 내고 또한 어느 飲食店은 좀 덜 쓰니까 한 800萬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르는 것이 價格이다. 이래 가지고 한 번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恩平區廳에서 한 번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市民들이 이 가스에 대해서 恐怖症이 걸려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나는 판

가스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運營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地域을 가면 여기는 조금 더 머니까 여기는 그런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저 쪽에까지 가는데 20m면 20m 간 것까지 다 받아요? 일반 家庭 住宅입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다 받고 다음에 거기서 또 거기 지나갈 때는 그것을 控除 안해 주고 그것은 또 다 받아요. 그렇게 지금 도시가스가 너무 暴利를 한다고 그럴까요 너무 지금 一方的으로 市民들 한테는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改善點을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그래서 아까 제가 金成奐 委員님 질의 때 答辯 한 것처럼 거리, 住宅의 形態 또 使用量 이것에 따라서 몇 가지 類型으로 가스사용 시설의 설치비용의 定型化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丁鎭 委員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申告들을 接해 가지고서 사실 내용을 조사해 보면 工事費를 過多하게 請求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工事費를 왜 그렇게 請求하는지 그 내용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해 가지고 사용하는 측에서 이것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設置 費用을 計算해 보면 그러한 費用이 들어 갑니다. 다만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것이 住民들로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잘 納得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市로서는 몇 가지 定型을 만들어 가지고 그 定型 範圍內에서 얼마의 誤差를 뒤 놓고서 上限線, 下限線을 뒤 놓고서 運營이 돼 가지고 市民에게 그러한 誤解의 所持가 없도록 이렇게 定型

化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施行토록 하겠습니다.

○丁鎭 委員;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심지어 도시가스회사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냐 하면 오히려 그 쪽에서 친절히 해서 시설해 주려고 하지 않고 이유를 달아서 조금만 뭐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안 해줘,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이니 만큼 局長님께서 앞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까 저희도 차트를 보고 많이 알았습니다마는 더욱 더 많이 힘써서 빨리빨리 住民들의 怨聲이 없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잘 알겠습니다.

(白昌鉉 委員長, 崔浩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崔浩; 다음은 申龍吉 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龍吉 委員; 銅雀 第 1選學區 民自黨 所屬 申龍吉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局長님이 설명한 도시가스 문제를 本委員은 저희 選學區가 4개 동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저희 銅雀區를 특히 落後된 地域이라 요즘 조금 살기가 괜찮다 보니까 가스 문제에 대한 公約을 제가 集中的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파헤쳐 봤습니다마는 아직 資料가 불충분해서 다음 會期로 좀 많은 부분을 質問코자 했는데 오늘은 특히 이 가스부분에 대해서 제가 丁鎭 委員이나 기타 委員들의 質問에 補充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91年度 도시가스 投資計劃 및 上半期 實績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서울시 總計, 저는 주로 家庭用을 상대로 했습니다.

今年度 취사가구 계획이 10萬 家口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

이 4萬 600, 推進率은 40.6%, 煖房은 7萬 4,000家口에 3萬 2,922家口, 推進率 44.4%,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正面 反對論을 提起를 합니다마는 炊事나 煖房이 구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會社側으로 봐서는 이 營業行爲로 볼 때 상당 부분을 推進을 煖房 쪽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實績이 바로 40.4%라는 炊事率보다도 높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産業局長께서 설명하는 가운데 煖房部分은 低調하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正式으로 異意를 提起하면서 특히 아까 丁鎭 委員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도시가스를 重點的으로 제가 調査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總計이고 그 다음에 서울도시가스 總計로 나뉘지겠습니다.

炊事が 2萬 9,200家口, 實績이 1萬 4,019家口 48%, 6月 30日 현재입니다. 다음에 煖房은 1萬 8,900家口에 실적은 1萬 5,209家口로서 80%의 率이라는 엄청난 率로 上半期에는 접어 들었습니다. 이것을 봐서도 역시 煖房에 아마 도시가스 株式會社에서는 選好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상에 나왔어요. 또한 銅雀區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年度 6月末 현재 도시가스 普及內譯도 역시 家口數인데 이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供給은 도시가스회사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자기자본으로 시공하는 영리목적사업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 문제에 있어서는 隘路事項이 많이 있습니다. 즉, 本委員이 그동안 法規를 찾아 본 결과 道路 掘鑿制限이 緩和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建設部 道路法施行令 第24條 第4項이 改正돼야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또한 우리 住民이 요구하는 30世代 물론 이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가정은 여기서 제가 除外시킨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引入管 掘鑿許可 對象除外를 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分野가 이제 各 區別自治制가 실시되니 만큼 이러한 業務를 이제 시는 建設部에다 요청을 하고 또 區는 시에다 요청을 하고 또 시에서는 下部 機關인 自治團體에게 과감하게 이 모든 업무를 위임을 했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도시가스 株式會社에 대한 제가 11개구를 아까 丁鎭 委員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油印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省略을 하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여러분들의 油印物에 나왔다고 42쪽입니다. 이 데이터가 전부가 11개구청의 實績과 또는 九老區를 담당하는 가스 실적과 모든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여하튼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할 적에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는 사실상 11개구청을 管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자기가 出資한 일종의 自己 所有는 아니겠습니까마는 일종의 自己 營業權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때 당시는 아마 72년도로 알고 있는데 말을 사람이 없어서 거의 서울시에서 맡아 달라고 애원하는 식에 의해서 맡은 것이 현재 자기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제가 質問중에 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인력에는 기술자와 행정직과 또는 모든 자본을 확충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확충을 하

기는 커녕 損益分岐點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投資를 忌避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회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다시 5개 회사를 서울시가 점유하고 해서 다시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라는 3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개소의 내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각기 많은 돈을 일종의 뭍니까? 등록을 함에 따라서 출자라기보다도 이제 그 뭍니까, 회사를 주식회사입니다. 물론 이 33개 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있고, 현재도 이 33개 업소로부터 每年 更新을 할 적마다 그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몇 億씩 아마 걸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地域的으로 보면 銅雀區 같은 데는 시공업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龍山에 가 있는 업자가 와서 하고 또 이 관리규정으로 보면 현재 전체 約 166개소의 시공업자가 있는데도 이것을 弘報가 부족해서 가장 가까운 곳 즉, 한 두개 있는 동작구에 있는 구에만 매달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價格의 均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證明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資料는 제가 領收證과 逆 計算한 逆 計算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각 도시가스지역, 대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한일개발, 강남도시가스 등등에게 아마 均等한 配分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알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質問코자 합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은 이 서울시장이나 시·도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40條 規定에 의해서 「調整·統廢습을 命할 수 있다」 이 條項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11個 구를 管掌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의 관할구역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調整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두번째로 가스공급 계획에 있어서 「가스공급 各 會社는 市·道知事에게 3 年間に 걸친 10월 말일까지 다음 年度의 3年間の 가스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동안 3개소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시가스공급규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읽어 봤는데요. 도시가스 條例 공급조례는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규정인데 이 내용을 꼭 읽어보고 다시 한 번 음미를 해 보니까 도시가스 株式會社에서 만들어 가지고 88年 7月 5日 날 서울시장으로부터 承認을 받은 事項입니다. 그 내용을 본즉, 상당히 도시가스 會社가 영리단체인 만큼 일방적인 측면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관계 당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第42條 規定을 적용한다면 관계 公務員으로부터 每年 몇 回씩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번 各 5개 會社에 대하여 장부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시가스회사 즉 5개 회사 사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상의 문제점이 반드시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 문제를 알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 이 문제점을 본위원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各 委員들의 全體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 달라고 동료위원들에게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隨時相議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빌어 이 對策에 대한 설명도 油印物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浩 幹事, 白昌鉉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白昌鉉; 局長님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아까 가스공급상의 문제를 서면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申龍吉 委員; 네? 아니, 두 가지만, 다는 아니고..... 이 보급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좀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 네 가지를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申龍吉 委員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質問이신 도시가스 供給 管轄 區域의 調整 또는 會社를 統廢合할 意向이 있는지, 가능한지를 質問하셨는데 이것이 도시가스는 管轄 區域대로 이미 지하에다가 管들을 다 자기회사의 資金에 의해서, 責任下에 管들을 매설했기 때문에 꼭 이것을 管轄 區域을 調整해야 될 절대적인 어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事由가 발생하기 전에 시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너희 管轄 區域을 떼서 이쪽으로 쥐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管轄 區域이 넓어서 또는 가스회사별로 自體資金의 調達을 태만히 해 가지고 타 회사보다 월등히 가스사업 擴張에 대해서 태만히 하는 그런 회사 또는 物議를 야기시키는

會社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強度 높은 指導, 監督權을 發動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회사는 3년간에 걸친 가스공급 계획을 매년 향후 3년간에 걸친 계획을 제출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答辯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每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부임한지 불과 한달정도 됐습니다만 저도 赴任하기 전에 도시가스의 공급문제가 대단한 이슈로 登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해서 도시가스회사가 자체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내용과 보급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받아 봤더니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내용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더 과감한 投資를 해야만 그 동안 실추된 대시민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꾸준히 되고 또 가스공급을 더욱 더 신속한 방법으로 더 擴張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각 회사별로 이 계획은 미흡하니까 다시 내라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내가지고 받은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6年 까지 서울市內 전체가구의 50%가 가스를 供給받을 수 있도록 擴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136億원인데 이 費用에 대해서 각 會社別로 지금 그러니까 市에서 일방적으로 策定을 해 놓고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資金을 調達할 계획을 만들어 와라, 지금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연도별로 92년에 374億원, 93년에 385億원, 94년에 428億원, 95년에 465億원, 96년에 484億원 해서 計 2,136億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각 회사별로 저희들이 分類를 해 가지고 각 會社別로 이것을 割當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도시가스하면 92년에 88億 3,200萬원을 投資해라, 93년에 96億 9,600萬원을 투자해라. 94년에 109億 4,400萬원을 投資해라, 95년에 115億 2,000萬원을 投資해라 96년에 124億 8,000萬원을 投資해라 이렇게 5個 회사별로 이것을 割當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資金調達計劃을 만들어 오도록 지금 이렇게 指示를 해 놓고 있습니다. 資金調達 計劃이 들어오는 대로 이 計劃을 확정해서 推進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都市가스공급규정이 도시가스 會社의 一方的 側面이 많다. 이것을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市 條例를 만들거나 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할 用意는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가스사업법 第20條인가요? 몇 條지요? 供給規程만들게 돼 있는 條項이?

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서 각 가스회사가 도시가스 供給規程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관할지역의 시·도지사의 承認을 받아서 이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承認받았지요」 하는 委員 있음)

현재 만들어 있는 制度는 이 規定은 서울시내 5個 도시가스 회사가 똑같은 規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規程이 사업법에 근거한 規程이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를 廢止를 할 수 없고, 規程의 내용이 모법에 맞지 않는 또는 현실과 遊離된 그러한 條文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改正을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個 회사에 대해서 帳簿調査를.....

○申龍吉 委員; 그 다음에 條例를 제정할 문제를 내가 提起했지 않아요? 현재 도시가스 關係에 있어서는 條例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條例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조례의 제정여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회사의 帳簿檢査 實績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課長으로 하여금 대신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個 會社의 社長이 본 위원회에서 出席해서 설명을 듣고서 하는데 대한 意見은 이것은 제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規則이라든가 여기에 이것이 합당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를 못해서 당장 答辯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委員님들께서 협의해서 議會에 나와서 出席하는 것이 不可能 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懇談會 형식으로 委員님들을 모시고 함께 서로 意見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주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상의 問題와 對策, 그리고 向後 對策에 대한 설명은 油印物로 만들어서 提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龍吉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도시가스 제40조에 該當됩니다. 이 「統·廢습을 命할 수 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서울도시가스가 이렇게 광활하다고 하면 바로 多發 民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所管은 아닙니다만 어저께 市 民生活局長께서 말씀하시기를 多發 民願이 많이 줄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사실상 區議會에서 걸러 내고 또 市議會에서 걸러내고 국회의원은 문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多發 民願은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없는 줄로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되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의하여 꼭 통·폐합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區域이 방대하고 資本이 없다고 하면 區域을 떼어줄 경우에는 그냥은 아닙니다. 合法的인 節次라고 하면 財産評價를 제대로 해서 九老區, 區를 하나 담당하는 區에게 넘겨주어서 住民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義務인 바 이러한 것도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統·廢合을 명할 수 있다」라는 規定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局長님께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收斂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골목 골목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 序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公約을 했고 또한 당시 地區黨 委員長도 함께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事項을 저만인줄 알았더니 同僚委員 全員이 도시가스 問題에 대한 問題를 많이 좀 是正해 달라고 要請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條例를 産業局長께서 안 하신다 하더라도 만일에 필요하다면 우리들 委員들이 作成해서 條例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條項만은 適用을 해서 반드시 統·廢合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원활하게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에 道路掘鑿 3년이 지나야 된다. 또 보도블록도 1년이 經過돼야 된다. 이러한 制約條件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진대 이와 같은 홍보부족도 있거니와 잘 살게 돼서 이러한 문제점도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強度높은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産業局長께서는 本委員이 얘기하는 事項을 5個 會社 社長에게 강력히 촉구해서 무엇인가 第1次 臨時會議에서 나타난 諸般 도시가



스 문제에 대해서 보다 나은 內實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林翼根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林翼根 委員; 많은 同僚委員들이 質問을 해주셔서 제가 할  
것은 거의 됐고요. 간단한 것인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15쪽에 아까도 質問이 나오셨습시다만 15쪽 中溪洞,  
倉洞 共販場에 관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可樂洞 農水  
産物都賣市場이나 또 九里市에 설치 하는 都賣市場이나 이런  
都賣市場이 蘆原區, 道峰區, 城北區에서는 실제로 거리가  
상당히 멀뿐만 아니라 동일로나 장수로에 교통 번잡이 있어  
가지고 九里市로 물건을 사러 가기가 거의 無望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市民들이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도 상  
당히 많기 때문에 倉洞地域에 세워지는 農水産物共販場에 대  
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게 住民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규모가 縮小된 것 같고,  
5,000坪 규모로 縮小됐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94年 완공이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入住한  
지가 보통 벌써 2年, 3年 지났는데 市場다운 市場이 별로 없  
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倉洞에 旣이  
設置하려고 했던 농수산물공판장을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  
는 것인지 2·3倍 정도로..... 제가 알기로 그 뒤쪽에 市有地  
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수용 施設을 짓고 있는데  
거기 道峰 第1地區, 住居環境改善 事業 가수용 시설을 2차분

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분이 2년 후면 敷地가 서울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해도 지금 이 事業이 그 事業보다 더 늦어집니다. 2년후면 93년 10월까지 그 땅을 내놓게 되는데 住居環境改善 事業에서 지금 쓰고 있는 땅을 93년이면 내놓게 되는데 그러면 이 事業은 94년에 完工이 되기 때문에 지금 5,000坪에 대해서 農協이 하고 있는 事業을 조금 더 빨리 實施를 하고 그 다음에 가수용시설이 철거된 그 나머지땅을 93년 94년에 좀 더 확장을 해서 한 2·3배의 규모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人口가 100萬이 훨씬 넘어 한 130~140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道峰, 蘆原, 城北..... 그런 規模의 再調整이 가능한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이 規模를 더 키워 달라고 하는 根據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可樂洞이라든지 九里쪽에 생기는 都賣市場은 실제로 서울시나 國費의 보조를 받아서 상당히 저렴한 價格의 大型市場인데 비해서 이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主體가 農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蘆原이나 道峰, 城北은 서울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 이런 意見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質問을 마치고 그 다음에 26쪽에 유명 브랜드에 대해서는 모조품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 주고 있는 그런 일을 1년에 4회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명브랜드를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公正去來를 보호할 그런 義務는 우리 산업 경제국에 있는 것이 아닌지, 예컨대 어떤 물건에 대해서 5萬 원이라고 써 붙이고 한 2萬원 쯤에 팔고 이런 것들이 市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컨대 시계같은 것도 한 7萬원부터 있는데 실제로 가격은 2萬원에 팔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제도 이런 質問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어떤 行政指導가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2만원에 팔 것 같으면 정가를 2만원 붙여 놓지 왜 7만원 붙여놓고 2만원에 파느냐 그런데 이것을 더 나쁜 商行爲로 쓰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화공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 가지고 한 20만원쯤 붙여놓고 한 7만원에 팝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화공약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價格을 압니다.

그러니까 한 7만원쯤 팔면 아! 거기가 값이 싸다 예를 들자면 淸溪川 4街라든지 이런데 값이 싸다해서 사람들이 가면 모르는 화공약품은 5만원짜리 갖다 한 20만원쯤 덤터기를 씌우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더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더 중요하다 유명 브랜드 몇 個를 지금 키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建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는 이걸 아주 간단한 質問인데 41쪽에 地域 煖房工事의 熱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唐人里發電所에서 부터 끌어가고 있는 거라면 혹시 熱源이 남으면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熱源을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게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많이 말씀 나오셨지만 그 42쪽에 나와 있는 가스 문제인데요, 저희 蘆原, 城北, 道峰지역도 지금 여기에 10만 가구에 들어간 걸로 돼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파트 지역에는 들어가고 있고 단독주택이 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도 계속적으로 넓혀주는 行政指導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京畿道 지역에서 반입되는

연탄을 지금도 規制하고 계시는지 몇 년 전까지는 規制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規制 끝났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끝났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다 끝나셨습니까? 네, 지금 質疑해주신 林翼根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生活環境局長님 新任 經濟局長님이시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東部圈 都賣市場이 九里市에 설치되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사실상 서울의 東部圈 圈域에 사시는 住民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이 교통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내택지개발지구에서 九里市 인창 IC까지 이 都賣市場까지 진입하는 도로를 서울시가 283億을 별도로 투자해서 같이 건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開通이 되면 현재의 이용 상태보다 훨씬 원활히 되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道峰 또는 蘆原지역에서 거기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가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概念으로 해서 이제 各 區單位로 직판시장을 開設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倉洞에 있는 農産物 共販場 이것이 당초 倉洞에 農産物 都賣市場을 짓기로 했다가 이것이 계획이 취소되고 그것이 신내주택개발지역로 갔다가 다시 九里市로 옮기게 됐기 때문에 倉洞 農産物 共販場 규모를 현재보다 한 2내지 3배 크게 해 줄수 없겠는가? 이렇게 質問이 계셨는데 이 직판시장의 개념은 이것을 먼 데 지역 사람이 오도록 하는 概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봉에 직판시장이 있으면 도봉 주민들만 이용하고, 蘆原에 있는 直販市場은 노원지역 住民만 이용하는 그러한 概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概念으로 볼 때 5,500坪 敷地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규모를 더 늘릴 계

획은 없고 우선 5,500坪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積極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林翼根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地區를 지금 地圖가 없는데 그 地區를 아시겠지만 道峰이 이렇게 있으면 道峰의 동북부에 속해 있으면서 蘆原을 감싸고 있거든요. 지금 中溪洞지역을 蘆原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倉洞을 蘆原區가 이용할 住民이 70% 이상입니다.

그 地圖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倉洞이 지금 道峰에서 감자모양의 머리같이 블록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林翼根 委員; 그러면서 거기에 수십만 家口의 아파트 단지가 蘆原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그런데 거기가 中浪川이 가로질러 가지고 中浪川 건너기 때문에 蘆原쪽의 下溪洞에 農産物 直販市場이 開設이 안 된다면 물론 노원구민들이 다 그쪽을 이용하겠습시다만 蘆原의 직판시장 위치가 蘆原區 아파트단지의 한 중앙입니다. 가장 중앙이기 때문에 蘆原지역 住民들은 蘆原區에 설치된 직판시장을 대부분 이용할 것이고 일부 上溪洞 쪽의 위에 있는 주민들이 창동쪽에 더 접근하기가 용이하면 그쪽을 이용할 텐데 이 규모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直販市場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해 놓으므로 해서 여기 또 새로운 교통체증이라든가 환경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개념으로 직판시장의 규모를 대개 2,000坪에서 8,000坪정도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委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直販市場이 農協中央會가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

는데 農協中央會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자금 동원 능력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로서는 일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아까 林翼根 委員이 말씀하시다시피 住民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파트 住民들이 이미 入住했기 때문에. 그래서 昨年부터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農協에서 서울시에 垆地를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臨時假建物を 짓고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보았더니 農協이 利益團體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고 農協이 또 그러면 분할납부하도록 해달라 이런 제의도 왔습니다. 분할 납부할 근거도 없고 해서 최근에 농협이 자기들이 다 매입해 가지고 직접 建設해서 運營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빨리 促進을 해 가지고 조속히 着工될 수 있도록 推進을 하겠습니다. 이 규모가 5,000坪 정도니까 저희들이 지금 着手한다면 94年 以前에 끝나 버립니다.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겠고 저희들이 時期를 넉넉히 잡고서 94년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九里市에 짓는 東部圈 都賣市場도 94년말인데 이 보다 훨씬 큰 규모를 갖다가 이 용지매수도 안한 처지에서 94년말까지는 竣工 시키려고 한거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着手만 하면 時期는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유명브랜드를 지원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工產品 公正去來 制度를 정착시키는 業務야말로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다. 市中에서 공산품의 경우에 표시가격보다 저렴하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原則적으로 이것은 저희 市에서는 市民生活局 消費者保護課의 業務입니다.

그러나 工產品의 품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消費者保護課와 市民生活局과 협의해 가지고 公正去來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대형 매장부터 착수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地域煖房公社의 熱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地域煖房公社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곳은 동부이촌동, 汝矣島, 盤浦洞입니다. 여기엔 당인리발전소에서 발전하고 나온 廢熱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熱源을 얻기 위해서 별도로 다른 연료를 연소하는 그런 장치는 없이 發電所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당인리발전소의 폐열이 지금 387G/cal입니다. 이 당인리발전소의 폐열가지고는 동부이촌동, 여의도, 반포동까지 공급하면 아주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열이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더 다른데 공급할 餘力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盆唐에 지금 지역난방회사가 열병합발전소를 또 建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盆唐地域에 전부 공급하고 그곳에 남는 일부 熱源을 서울시 수서·대치지역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의 그 單獨 住宅地域의 가스공급이 상당히 低調하다. 지금 한일도시가스 공급구역 중에서 10만가구가 공급되고 있지만 주로 아파트 지역이고 單獨 주택지역은 굉장히 低調합니다.

참고로 蘆原의 경우에는 지금 가스보급률이 55.1%입니다마는 道峰은 17.0%밖에 안 됩니다. 거의 單獨住宅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선도로이면서 供給管이 配管, 埋設이 안된 곳을 집중적으로 配管計劃을 세워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誘導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京畿道에서 搬入된 연탄은 구제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서울시내 연탄공장이 過剩生産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연탄공장들이 京畿道 지역으로 搬出을 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桂承澤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桂承澤 委員; 桂承澤 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이 좋은 質問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KS표시등급 査定品에 대한 품목수가 393, 품질조사 工場 檢査 年 1回, 또 2년에 1回 이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KS表示 허가 부문은 公營진흥청에서 全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지금 二元化되어 있고 公進청에서 나와서 工場 審査나 檢査를 할 적에는 약 2日씩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市廳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檢査하는 것이 다 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二元化되어 있는 것을 公進청으로 일원화 해야 된다고 저로서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36페이지에 무연휘발유가 나왔는데 언리드라고 보겠습니다. 이걸 납연자가 잘못된 걸로 보는데 무연휘발유가 보통 휘발유보다는 가격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미스프린트인지 실체가 이렇지 答辯해 주시고 미스프린트라면 이러한 것에 저희들이 質疑하는데에 이러한 미스프린트도 修正 안하고 그냥 줬다는 자체가 無誠意하다고 보면 무엇이든지 일이 나열하여 展示 效果的인 行政을 한다는 國民의 輿論이 많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市民을



위한 行政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昌鉉; 네, 감사합니다. 桂承澤 委員님 質問에 대해서 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KS표시허가는 공업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거기에 맞는 생산시설을 해 놓고 한국공업규격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면 표시허가는 공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 檢査는 공진청에서 市·道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원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委任된 業務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화라고 볼 수 없고 공진청에서도 나오고 또 시에서도 나오고 지방행정기관에서도 나오고 이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실태를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양쪽에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공업진흥청이 시·도지사한테 委任해 놓은 업무를 위임 주어놓고 자기들이 선별적으로 어디 또 특별한 공장에 대해서 나가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모든 KS표시허가공장에 대해서 공진청도 나가고 지방행정기관도 나간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무연휘발유의 '煙'자는 틀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도 代理店도 販賣所도 이것은 이 금액이 맞습니다.

○桂承澤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감사합니다. 더 이상 質問하실 委員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1次 오전에 質問하셨던 李元局 委員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質疑를 하겠습니다.

○李元局 委員; 죄송합니다. 저는 오전에 質問을 했는데 또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간략하게만 質問하겠습니다. 業務現況 19페이지에 在來市場의 現代化 計劃 推進에 대해서 조금더 質問을 해 보렵니다. 우리 서울시의 재래시장이 사실은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센터에 밀려서 문 닫는 점포가 매우 급속적으로 續出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管理者마저 없어서 市場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어서 83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465개에 달했던 서울시내의 재래시장은 91년에는 368개로 激減이 됐습니다. 이들 市場도 해마다 4,5個씩 입주 店鋪가 閉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론으로부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7月부터 流通市場 開放 2段階 조치가 실시되면서 해외 流通業界가 進出하여 在來市場의 沒落이 더욱 加速化 되면서 문을 닫는 店鋪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제공하여 住民의 生存을 보존하고 나아가 삶의 質을 높여 주는 物的 土臺가 되었던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이대로 사라지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店鋪를 대형화하고 合理的인 業種別 배치를 하여서 地域의 대형 편의점으로 現代화시켜 製造業 主導型 流通救助로 市場機能을 活性化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나 서울시 유통 산업의 발전에 長期的 효율성 提高를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서너 가지만 質問합니다.

서울시의 재래시장 現代化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본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質問은 이에 대한 自救策을 강구하고 있는 서울시 各 地域 시장협의회에 대한 支援策이 있을 것 같은데 답해 주시고, 두번째로 추진 내용 란에 보면 流通 近代化 재정작업을 상공부가 5億원 내지 8億원을 支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

체적으로 지원방법을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자체에서는 지원예산이 전무한 상태로 보는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지원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答辯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昌鉉; 李元局 委員님 質問하신데 대해서 産業經濟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商工課長께서 그 質問에 答辯토록 하겠습니다.

○李元局 委員; 상공과장께서 答辯해 주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商工課長 李重吉; 李元局 委員님 質疑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만 있고 각 지역 시장협의회에 대한 지원대책 등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 서울시에 현재 재래시장으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7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하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육교 이런 상가 또 주택복리시설로서 아파트지역에 든 상가 그 다음에 대형빌딩 내에 있는 상가, 대로변 상업지역에 있는 소위 재래시장, 이러한 상가들을 뺀 나머지 소위 주택가에 있는 재래시장이 약 22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15군데는 改善을 안 해도 그런대로 현재의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나머지 106군데 정도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個 중에서 저희들이 改善을 해야 될 市場을 約 90個 정도로 이렇게 해서 每年 10개 정도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在來市場들이 그 동안에 상당히 그 지역 住民의 生必需品

을 공급하는데 寄與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근래 들어와서 특히 시설문제라든가 취급 물품 문제라든가 서비스 문제라든가 취급 물품문제라든가 서비스 문제라든가 몹시 落後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제책으로 나온 것이 시장 + 아파트, 시장의 그 넓은 면적을 1-2층의 재래시장만 가지고는 요새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시장으로써 기능이 어렵다. 그래서 그 땅을 좀더 활용하고 또 기왕에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까지 복합건물을 지으면 땅도 이용하고 또 시장의 수요자들도 많이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종전에 없던 제도를 建設部와 상공부가 협의해서 市場과 아파트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소위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을 해 놓고 이 보고서 내용에 10개 시장을 지금 금년 내에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6개 시장이 복합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시장은 쇼윈도 改善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수선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救濟策으로서는 역시 현재의 땅을 활용하고 또 모자라는 住宅難도 해결하고 이래서 複合建物로 건축을 해 나가도록 誘導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政府에서 쥐고 있는 유통문제와 재정자금은 새로 집을 지을 경우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 사업계획 내용을 구청 産業課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서울시에 전달을 하면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신탁은행에 사업이 확정돼서 추천을 하면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최고 5억원까지를

용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전자금은 4년 거치 1년 분할상환까지도 용자를 해 주고 있고 이것은 年利 1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운전의 活性化를 위한다든가 현대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政府 財政資金을 서울시에 배정해 준 금액을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전부다 소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商工部라든가 이러한 데서 보면 각 地方에서 남은 돈을 예를 들면 서울시에 100억원을 금년도에 배정을 했는데 100억원을 다 못써서 다른 지방에 다시 배정하는 이러한 제도도 한번 講究를 해 봤더니 역시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서 풀로 상공부에서 전체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희망하는 市場이 있을 때에는 市·道知事가 상공부에다가 올리지 말고 바로 서울신탁은행에 추천만 해 주면 거기에서 용자는 새로 짓는 경우에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자금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商工部 財政 資金도 남아돌아가는 판인데 서울시에서 아직 자금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 했고 저희는 아까 崔浩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中小企業 제조업체에 注力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政府의 財政資金이 모자라고 또 수요가 많이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市場의 近代化 財政資金을 서울시 財政資金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講究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昌鉉;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産業經濟局 所管業務 現況報告에 대한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안 계시지요?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産業經濟局에서 참석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長時間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두 가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장 아홉 분이나 많은 연구와 진지한 質疑를 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局長以下 公務員들께서 오랜 시간에 誠意를 다해서 答辯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公務員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建議하시고 質疑하신 가운데 도시가스문제만은 여러분들이 계획 이전에 오늘 우리가 建議한 여러 가지 일을 참조 하셔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공히 가지고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라도 家庭에서 주부의 炊事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특히 産業經濟局的 局長님을 위시한 여러분께서 원칙과 계획에만 依存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많은 市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推進해 주실 것을 附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29分 散會)

.....  
書面答辯書

(뒤에 실음)

---

○出席委員

白昌鉉	崔浩	李基烈	桂承澤
李元局	申尙澈	金成奐	韓瑞奎
李永輔	權赫柱	丁鎭	申龍吉
金昌學	林翼根		

○專門委員

成泰辰

○出席公務員

產業經濟局

商工課長書記官	李重吉
燃料課長書記官	金在宗
가스課長書記官	金致經
農畜課長書記官	崔熙周
糧政課長書記官	李來昶
農村指導所長	鄭載赫
工業試驗所長	李揆珍